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인생은 뜬구름과 같은 것

현대인들은 수많은 질병을 앓으면서 살아간다. 문명이 될 발 달렸을 때보다도,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병이 더 없어져야 되는 데도, 의학이 고도로 발달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은 모두들 오래 사는 고령사회이기에 고령이후에 급속히 발병하는 질병이 그 원인의 하나일 수 있다.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 사회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환경공해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마음의 병 때문이지 않을까.

현대인들은 날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물론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 일을 하고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스트레스가 쌓인다. 더 많은 행복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도는 더 커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체로 사회적 지위, 물질의 축적이 높고 많아질수록 비례해서 스트레스의 축적도 높아진다. 행복하지는 것이 고통의 굴을 갠게 파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어리석은 욕망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어 한다.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함몰시켜가는 셈이다. 유한자적 인간. 생전에 쌓아온 것들을 결코 다 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욕망영아리는 이 순간에도 칼춤을 추고 있다. 그 누구도 수명의 한계를 이겨낼 수 없음에도 말이다.

몇몇의 예를 가까이서 들어보자. 삼성그룹 창시자였던 고 이

병철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고 이승만·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얼마나 살았는가. 모두들 80대에 사망했다. 북한의 최고통치자였던 김일성(82세) 및 김정일(69세) 역시 80대 전후에 사망했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못 받아서였겠는가.

특히 김일성 부자는 백두산 등에서 나는 산삼 등 온갖 명약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사람들 모두 80대 전후에 사망했다.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부질 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뜻이다. 세상이 덧없다.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갖자.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살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특히 마음의 병을 앓지 않으면서, 마음의 병은 자신의 의지대

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애당초 처방이 잘못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근원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수명을 다할 때까지라도 행복을 구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의 충고나 전문가의 상담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을 앓으면서 삶을 지지부진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의지할 때가 있다. 반대로 타인에게 의지가 되어 줄 때도 있다. 이것이 인간사다. 이렇게 서로 지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등이 별 것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험한 말과 행동 일랑 하지 말자. 서로 잘되라고 기원하면서 살자. 날마다 상대방을 못 잡아먹어 한이 되는 것 같은 언행들은 하지 말고, 특히 정치인들은 더더욱.

社說

매맞는 119구조대원 없어야

광주·전남에서 최근 6년간 43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구조대원은 우리 사회를 위난으로부터 구하는 최일선 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그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구조대원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법을 강화해서라도 근절시켜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006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2건, 2017년 4건, 2018년 5건, 올해 7월까지 1건 등 총 18건이 발생했다.

폭행사건으로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은 인원은 2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급대원 중 남성은 20명, 여성은 2명으로 확인됐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가 17건, 기타가 1건으로 나타났다.

폭행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5명, 기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14년 6건, 2015년 11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2018년 1건, 올해 7월까지 1건 등 총 25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33명으로 남성 24명, 여성 9명이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가 22건, 기타가 3건으로 나타났다.

폭행 당사자들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7명,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14명, 기소유예 2명, 재판 진행 중 1명 등으로 확인됐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급대원을 위해 발의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폭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증가 추세이고, 특히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있으므로 이제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교육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발굴하고 시행할 시점이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사건을 무조건 학폭위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제도는 "학교가 가해 학생의 사과와 피해 학생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폭력에 방법'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친구 간 사소한 다툼도 학폭위가 개최되는 이유로 가

피해기간 원만한 사과 및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간 서로 만족한 제도가 되지 못했다.

또한, 가해자의 처벌은 학교생활부에 기재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자산이다. 그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부모, 경찰은 물론 시민·종교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

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될 때 부모들은 감정적인 기분이거나 생각에 치우쳐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한 길이 진정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학교폭력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길 때 학교폭력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조현웅 /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